

치매는 노화현상 아닌 뇌 질환 ... 건강한 노년의 적



건강 바로 알기 치매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원장

오늘날 우리는 장수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은 인간을 많은 종류의 병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었고, 그에 따른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연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이 1930년대에는 36세에 불과했으나 1960년대에는 52.4세, 1990년대에는 69.8세, 2000년대에는 74세, 2010년에는 80세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83.3세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중 치매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7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화 아닌 뇌질환

치매는 '이성을 빼앗다', '어리석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임상적인 면으로 분류하면 치료 가능성 여부에 따라 수동증, 뇌경막하 혈종, 매독, 갑상선 질환 등으로 인한 치료 가능한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어려운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자세 중요
가족간 유대와 안전사고에 유의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Pick's disease, 파킨슨 양상을 동반한 퇴행성 질환과 같이 치료 불가능한 퇴행성 치매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분명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의 증상으로 크게 물건 든 곳을 잊거나, 새로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 하고 심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아가 식사나 음식 섭취에 대한 기억이 상실돼 지속적으로 음식을 요구 하는 등의 기억력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 감정의 표현이 커지고 짜증이 늘어나거나 심한 경우 욕설과 폭력성을 나타내는 감정의 변화,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언어구사 능력이 상실되고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진단과 치료

치매를 진단하는 데는 미국 신경정신과학회의 'DSM-5'가 흔히 사용된다. 진단 기준을 요약하면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고 ▲인지기능 저하가 검사에서 보일 정도이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을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다. 치매 치료의 원칙은 대부분의 치매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물 치료를 통한 증상의 완화 및 급속한 진행의 억제와 함께 문제 행동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유대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위생과 영양 상태 유지에 힘쓰며, 안전 사고에도 유의하고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의학적으로는 노화에 따른 정기부족을 보완해주며 담음(痰鬱)이나 기혈(氣血)로 인한 기혈 운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영국 치매협회는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치매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치매는 노년기에 더 흔히 나타나고 기억력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츰 저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치매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는 서로 다르며, 치매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치매가 있을 경우 더 뚜렷하고 분명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며, 기분 변화나 판단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치매는 뇌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치매는 여러 증상의 묶음이며, 이 '묶음'에는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가 포함된다. 이 증상들은 뇌의 질환으로 인해 생긴다.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며, 그 외의 다양한 질환에 의해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치매는 기억력 외의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억력 저하이다. 많은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도 기억력 저하이다. 그러나 기억력 저하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억력 외에 언어나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도 저하될 수 있으며 기분, 성격,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치매가 있을 경우 남들과 소통하며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매년 새로운 연구로 치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도움을 받



동행재활요양병원 류기준 원장이 찾은 기억 상실을 우려하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을 수 있는 방법도 점차 늘고 있다.

▲치매가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다=치매가 있으면 희망도 즐거움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치매가 있어도 만족스러운 직장·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매가 진행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치매가 있으면 물론 생활이 이전보다 어려워진다. 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많은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치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지는 것은 아니다=주변의 누군가가 치매로 진단될 경우,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평소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 본인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속에 그 사람이 아직 남아 있다.

2014년에 실시된 국내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43%)로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장수시대로 갈수록 피해야 할 치매를 국가적 차원에서, 각 개인적 차원에서 모두 통합적 관리 및 대치가 필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병원 원장 등 직원 130여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6일 오전, 광주병원에서는 김대현(사진 가운데) 대표원장의 첫 접종을 필두로 총 130여명의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광주병원 제공>

정명호 교수, 일본심혈관중재학회 화상특강 큰 호응

심근경색증 등록연구 경험 등 국내 연구 우수성 알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사진) 교수가 최근 일본심혈관중재학회에서 한국인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 심장학 명의로 꼽히는 정명호 교수는 최근 사흘간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29차 일본심혈관중재학회에서 요시아키 카타하라 학회장의 초청으로 화상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에서 정명호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온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orea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KAMIR) 경험에 대해 강연했다.

강의 내용은 일본과 공동연구해 유럽심장학회에 발표했던 'KAMIR-DAPT score를 이용해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항혈소판제 투여 방법'과 일본·미국심장학회지에 게재되었던 심근경색증 환자의 다양한 치료 경험 등이다. 특히 KAMIR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100%에 가까운



99.4%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심혈관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을 11.4%에서 6.7%로 크게 낮췄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편 KAMIR은 지금까지 총 7만 7000여명의 환자를 등록했으며, 총 307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일본심장학회에 KAMIR을 소개해 일본도 JAMIR 연구팀을 결성하는데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 매년 KAMIR-JAMIR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 심혈관중재술 전문가들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전남대 병원 심장센터와 대한심장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건립될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김수환 전공의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수록

화순전남대병원 김수환 전공의(직업환경의학과, 지도교수 문재동)의 연구논문이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환경 보건 전망'(약칭 EHP, 논문인용지수=10.1)에 게재돼 주목받고 있다.

'EHP'는 환경보건과 산업의학을 주로 다루며,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SCIE JCR의 상위 1%에 학술지다. 환경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은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관상동맥 협착과 혈중 납 농도의 연관성'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의 첨단 의료장비인 128채널 초고속 CT로 심장 영상을 구현, 납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장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요소임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심장질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금연·성인병 관리·적절한 체중 유지·규칙적 운동 등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도 중요함을 새삼 일깨워 준 호평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